

보도시점 2025. 6. 11.(수) 09:00 배포 2025. 6. 11.(수) 09:00

제조·건설 감소세 완화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 고용률·경활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

- 청년 고용 어려움 지속되나, 취업자·고용률 감소폭 전월 대비 축소
-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촉진 노력 지속·강화

① '25.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8%로 전년대비 +0.3%p 상승, 15~64세 고용률은 70.5%로 전년대비 +0.5%p 상승하였다. 경활률은 65.6%로 전년대비 +0.2%p 상승하였으며, 실업률은 2.8%로 전년대비 △0.2%p 하락하였다.

* 5월 고용지표('24→'25년, %): <고용률> 63.5 → **63.8** <경활률> 65.4 → **65.6** <실업률> 3.0 → **2.8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1.2%, +1.1%p) 및 40대(80.2%, +1.0%p)·60세 이상(48.3%, +0.9%p)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, 청년층(46.2%, △0.7%p) 및 50대(77.6%, △0.5%p)에서 하락하였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.5만명 증가하였다. 업종별로는 서비스업(60.6→54.9만명)에서 증가한 반면, 건설업(△15.0→△10.6만명)·제조업(△12.4→△6.7만명)·농림어업(△13.4→△13.5만명)은 감소하였다. 지위별로는 상용직(27.9→36.2만명)·임시직(5.2→2.5만명)이 증가했고 일용직(△5.4→△5.9만명)은 감소하였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4)26.1 (5)8.0 (6)9.6 ('24.下)9.9 ('25.1)13.5 (2)13.6 (3)19.3 (4)19.4 **(5)24.5**

③ 취업자수는 '24.4월(26.1만명)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였다. 15세 이상 경활률·고용률 및 15~64세 고용률(70.5%)은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이 70%를 상회한 것은 12개월 만이다.

○ 업종별로는 제조·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.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, 건설업은 '24.5월 취업자가 큰 폭 감소했던 기저효과('24.4월 0.5만→'24.5월 △4.7만) 영향으로 감소세가 완화되었다.

-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다. 공공행정·보건복지업은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, 숙박음식업은 내수 어려움 지속 등의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였다.

- 청년 취업자수($\Delta 17.4 \rightarrow \Delta 15.0$ 만) 및 고용률($\Delta 0.9 \rightarrow \Delta 0.7\%$ p) 감소 등 청년층 고용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나, 감소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다.

④ 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.

-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.

-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.

- 또한,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·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미취업·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주성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준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신효빈 (044-202-7284)



1. '25.5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**63.8%** 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**65.6%** 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**2.8%**, 취업자수 **+24.5만명 증가**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3.8%로 전년대비 상승(역대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5%로 +0.5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4.3/4)63.3 (4/4)62.6 ('25.1)61.0 (2)61.7 (3)62.5 (4)63.2 **(5)63.8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4.3/4)69.8 (4/4)69.7 ('25.1)68.8 (2)68.9 (3)69.3 (4)69.9 **(5)70.5**

○ 경제활동참가율 65.6%로 +0.2%p 상승(역대 1위, 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4.3/4)64.7 (4/4)64.4 ('25.1)63.4 (2)63.7 (3)64.6 (4)65.1 **(5)65.6**

○ 실업률은 2.8%로 $\Delta 0.2\% \text{p}$ 하락(^{5월 기준}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4.3/4)2.2 (4/4)2.8 ('25.1)3.7 (2)3.2 (3)3.1 (4)2.9 **(5)2.8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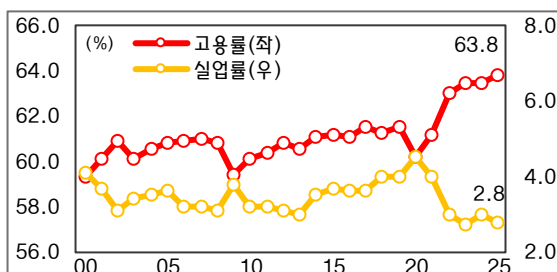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24.5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4)26.1 (5)8.0 (6)9.6 ('24.下)9.9 ('25.1)13.5 (2)13.6 (3)19.3 (4)19.4 **(5)24.5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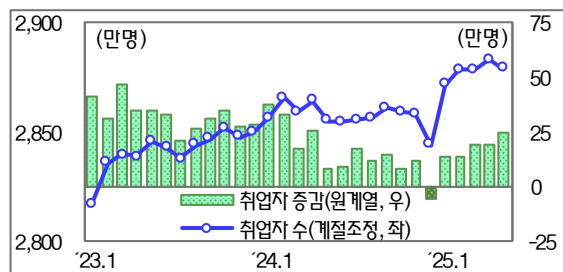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$\Delta 4.4$ 만명 감소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4.12) $\Delta 13.9$ ('25.1)27.6 (2)7.0 (3) $\Delta 0.2$ (4)4.8 **(5) $\Delta 4.4$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5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대비)



□ **(산업) 서비스업 증가 지속, 제조업·건설업 감소폭 축소·농림어업 감소폭 확대**

- **(서비스)** 51개월 연속 증가 지속, 증가폭은 축소(+60.6 → +54.9만명)
 - 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30.5 (4/4)26.8 ('25.1)34.9 (2)40.1 (3)56.7 (4)60.6 **(5)54.9**
 - **보건복지(+23.3만)·금융보험(+7.2만)·전문과학(+11.7만) 등 증가폭 확대, 도소매(△0.3→1.8만)는 증가 전환**
 - 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8.5 (4/4) 6.9 ('25.1) 11.9 (2)19.2 (3)21.2 (4) 21.8 **(5)23.3**
 - *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2.8 (4/4) 2.7 ('25.1) 3.1 (2) 2.9 (3) 6.5 (4) 6.5 **(5)7.2**
 - 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7.1 (4/4) 7.8 ('25.1) 9.8 (2) 8.0 (3) 3.7 (4)11.3 **(5)11.7**
 - * 도소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7.4 (4/4)△11.1 ('25.1)△9.1 (2)△6.5 (3)△2.6 (4)△0.3 **(5)1.8**
 - **공공행정(+3.2만명)·정보통신(+4.9만명)·교육서비스(+7.0만명) 증가 지속**
 - *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3.6 (4/4)3.4 ('25.1)3.3 (2)3.8 (3)8.7 (4)5.1 **(5)3.2**
 - 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9.6 (4/4)6.4 ('25.1)8.1 (2)6.5 (3)6.1 (4)7.2 **(5)4.9**
 - * 교육서비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0.8 (4/4)8.5 ('25.1)6.3 (2)3.4 (3)3.0 (4)6.8 **(5)7.0**
 - **숙박음식(△6.7만) 감소 전환, 사업시설(△1.6만) 감소 지속**
 - *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 2.9 (4/4) 2.1 ('25.1) 2.7 (2) 5.6 (3) 5.6 (4) 0.1 **(5)△6.7**
 - * 사업시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3.6 (4/4)△6.9 ('25.1)△2.9 (2)△7.4 (3)△2.4 (4)△2.9 **(5)△1.6**
- **(제조)** 식료품·기타기계·금속가공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(△12.4→△6.7만명)
 -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3.2 (4/4)△7.5 ('25.1)△5.6 (2)△7.4 (3)△11.2 (4)△12.4 **(5)△6.7**
- **(건설)** 전문공사가 개선되며 감소폭 축소(△15.0→△10.6만명)
 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8.8 (4/4)△11.5 ('25.1)△16.9 (2)△16.7 (3)△18.5 (4)△15.0 **(5)△10.6**
- **(농림)** 전월 이상기온 여파 등으로 감소폭 확대(△13.4→△13.5만명)
 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.3/4)△3.6 (4/4)△2.5 ('25.1)0.7 (2)△1.9 (3)△7.9 (4)△13.4 **(5)△13.5**
 - * 4월 강설기온 강하 등 이상한파로 농지 개량 등 차질 → 5월 중순 이후 모내기 지연 등 발생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57.4%(+0.7%p), 3~40대·고령층 고용률 상승**

- **(지위)** 상용직 증가폭 확대(+36.2만명),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
 - * 상용직 비중(5월, %): ('00)29.7 ('05)34.4 ('10)41.5 ('15)47.9 ('20)53.7 ('24)56.7 **(25)57.4**
 - 임금근로자 증감(4→5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27.9→**36.2** <임시>5.2→**2.5** <일용>△5.4→**△5.9**
- **자영업자(고용有·고용無)·무급가족 종사자 모두 감소**
 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4→5월, 만명): <고용有> △1.6→**△1.1** <고용無> 1.1→**△1.2** <무급> △7.7→**△6.1**

- (연령) 30대·40대·고령층 고용률 상승, 청년층·50대는 감소

	전체	청년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인구(전년비, 만명)	+19.2	△20.0	+6.7	△14.9	△3.3	+50.5
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	+24.5	△15.0	+13.2	△3.9	△6.8	+37.0
고용률(% , %p)	63.8 (+0.3)	46.2 (△0.7)	81.2 (+1.1)	80.2 (+1.0)	77.6 (△0.5)	48.3 (+0.9)

- 청년층 고용률(46.2%, △0.7%p) 하락, 실업률(6.6%, △0.1%p) 하락 전환

(%, %p)		'24년	4/4	'25.1Q	3월	4월	5월
고용률	청년	46.1 (△0.4)	45.3 (△0.9)	44.5 (△1.5)	44.5 (△1.4)	45.3 (△0.9)	46.2 (△0.7)
	20初	45.1 (△0.6)	43.9 (△1.8)	42.7 (△2.1)	42.3 (△2.1)	43.0 (△2.5)	45.8 (△0.7)
	20後	72.5 (+0.2)	72.2 (△0.4)	71.2 (△1.4)	71.5 (△1.3)	72.5 (△0.2)	72.7 (0.0)
실업률	청년	5.9 (0.0)	5.6 (+0.3)	6.8 (+0.4)	7.5 (+1.0)	7.3 (+0.5)	6.6 (△0.1)
	20初	6.3 (+0.5)	5.8 (+0.8)	8.1 (+0.7)	9.2 (+0.9)	7.9 (△1.0)	7.7 (+1.0)
	20後	5.6 (△0.3)	5.6 (+0.2)	6.3 (+0.6)	6.8 (+1.3)	7.1 (+1.3)	6.3 (△0.3)

- 청년층 쉬었음(39.6만명, △0.3만명)은 청년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·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세가 완화되며 13개월만에 감소 전환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5월 13.7%, 109.0만명)은 '24년보다 상승(+0.5%p, +0.9만명)했으나, 예년('20~'24년 평균 14.6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5월 기준, %)

(5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0~'24)	'20	'21	'22	'23	'24	'25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25.6 (14.6)	149.4 (16.7)	141.7 (16.1)	119.8 (13.9)	108.8 (12.9)	108.1 (13.2)	109.0 (13.7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33.4 (3.9)	42.6 (4.8)	40.2 (4.6)	32.0 (3.7)	24.7 (2.9)	27.6 (3.4)	26.2 (3.3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52.5 (6.1)	60.6 (6.8)	62.3 (7.1)	53.2 (6.2)	45.5 (5.4)	40.7 (5.0)	43.2 (5.4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39.7 (4.6)	46.2 (5.2)	39.2 (4.5)	34.6 (4.0)	38.6 (4.6)	39.8 (4.9)	39.6 (4.9)

* 최근의 청년층 쉬었음 증가추세는 수시·경력직 채용 증가로 구직·이전직 과정에서 '취업준비·실업 응답비율'이 감소하고,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증가하는 데에 일부 기인한 측면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1.2 (4/4)0.8 ('25.1)0.9 (2)1.1 (3)1.0 (4)0.7 (5)1.1 [81.2%]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0.6 (4/4)0.4 ('25.1)0.6 (2)0.6 (3)0.9 (4)0.8 (5)1.0 [80.2%]

- 50대는 인구감소 대비 취업자수 큰 폭 감소하며 고용률 하락, 60세 이상은 직접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△0.5 (4/4)△0.2 ('25.1)△0.3 (2)△0.1 (3)△0.2 (4)0.0 (5)△0.5 [77.6%]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3/4) 0.3 (4/4) 0.2 ('25.1)1.0 (2)0.9 (3) 0.9 (4) 0.7 (5) 0.9 [48.3%]

2. 평가 및 대응

□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(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), 고용률 역대 최고
다만, 내수부진·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·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

- 제조·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
 - * 취업자 증감(4월→5월, 만명): (제조)△12.4 → △6.7 (건설)△15.0 → △10.6 (서비스)60.6 → 54.9
 -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(^{4월}△0.7→^{5월}1.0%), 식료품·기타기계 증가폭 확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, 전월비(계절조정)로는 2개월 연속 증가(+2.8만)
 - 건설업은 기저효과(^{24.4월}0.5만→^{24.5월}△4.7만) 영향 등으로 감소폭 축소
-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축소
 - 공공행정·보건복지는 직접일자리아업 효과·돌봄수요 확대 등이 작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으나, 전월 대비 증가폭은 소폭 축소
 - * 공공행정·보건복지(전년비, 만명): (25.1)15.2 (2)23.0 (3)29.9 (4)26.9 (5)26.5
 - 숙박음식업은 내수 부진 및 기저효과(^{24.5월} 조사주간 석가탄신일 포함, ^{24.4월}2.9만→^{24.5월}8.0만)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(0.1→△6.7)
- 청년 고용지표 감소세는 지속되었으나 청년 취업비중이 높은(24.6%) 제조·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
 - * 청년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24.3/4)△15.3 (4/4)△19.3 (25.1/4)△22.0 [^{3월}△20.6] (4)△17.4 (5)△15.0
 - * 청년 고용률(전년비, %p): (24.3/4) △0.4 (4/4) △0.9 (25.1/4) △1.6 [^{3월}△1.4] (4)△0.9 (5)△0.7
- 향후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제조업·수출산업 등에 파급될 우려 상존하는 만큼, 관련 동향 면밀 모니터링

□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
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강화

-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안 신속히 마련
-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 확대 추진
-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위해 청년 일경험·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없이 추진, 미취업·쉬었음 청년 고용서비스 지속 강화